

# 한국 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생태학적 특성

이 영 미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외래강사/전남대학교 Post-Doc 과정)

천 득 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 전통건축, 랜드스케이프 건축, 생태건축, 자연, 불확정성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지구 환경 파괴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생태학적 패러다임은 현재의 과학기술 문명을 반성적으로 재평가 하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며, 건축에서도 인간의 총체적 삶과 자연, 그리고 더불어 물리적 구축체계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인식에 기초를 둔 다양한 건축적 시도, 제안, 구체적 해결 방법들은 1970년대를 전후로 '생태 건축'<sup>1)</sup>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패러다임의 흐름 속에서 생태건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대두되고 현대 건축의 흐름 중 하나인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하

지만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자연관에 대한 모호적이고 비체계적인 논리들은 보다 체계적인 생태학적 건축 원리로써 현대 건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건축적 해결책의 비교연구를 통해 전통건축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전통건축에서 발견되는 생태적 특성과 원리를 유형화한다면 현대의 생태건축을 위한 또 다른 방법론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 진다.

### 1-2. 연구의 흐름

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나고 있는 생태 건축적 디자인 방법론을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생태건축'이란 개념이 현대에 대두된 개념인 만큼, 현대건축에 적용되고 있는 생태미학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통건축에 영향을 끼친 자연관에 나타난 생태 건축적 특성들을 유추하고 다음으로 랜스케이프 건축의 생태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통해 전통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태적 요소들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 2. 생태학과 생태 건축적 특성

### 2-1. 생태학과 생태 패러다임

생태학<sup>2)</sup>(Ecology)은 1866년 독일의 생물학자인

※ 이 논문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1979년 K.Otto, D.Althaus, P.U.M. Krusche, I.Gabriel 이 독일 연방환경청에 제출한 보고서 제목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및 생태계를 고려한 다양한 건축적 시도와 개념들을 종합하여 생태건축(Okologisches Bauen)이라는 이름을 명명하였다.

2)생태학(Ecology)의 어원은 희랍어로 집을 의미하는 Oikos(家

Ernst Haekel<sup>3)</sup>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과의 여러 관계를 다루는 생물학의 한 분야를 의미”<sup>4)</sup>하며, 더 나아가 “유기체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기 환경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총체적 학문이며, 넓은 의미에서 외부 환경에 속한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생존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즉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처럼 하나의 분과과학으로 취급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는 현상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모든 생명체가 거주하고 있는 집=자연환경)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sup>5)</sup>이다.

한편, 생태학의 등장과 복잡성 과학<sup>6)</sup>의 발달은 세계를 부분의 집합으로 보는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패러다임<sup>7)</sup>에서 세계를 상보적이고 유기적으로 보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sup>8)</sup>을 가져오게 되었다. 생태학적 패러다임은 생명, 마음, 물질, 진화 등에 대한 모든 현상들을 하나의 통합된 관점으로 이끌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처럼 자연을 하나의 정복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이라는 전체는 부분의 산술적인 총합과 같다’는 환원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며,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보다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합일’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전일적(holistic) 세계관, 시스템 이론<sup>9)</sup>

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오늘날 지구 환경 파괴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은 이러한 전일적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처럼 전일적 세계관으로 대변되는 생태 패러다임은 21세기 기술 진보에 힘입어 건축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2-2. 생태건축의 다양한 층위

생태건축의 개념은 “인간이라는 군집이 처한 환경, 즉,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그에 따른 다양한 생활 욕구가 생존공간의 생태학적 특성과 균형 조화를 이루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주문화를 이룩하고 이것이 건축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생태건축은 환경친화 건축(Environmental Friendly Architecture),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그린 건축(Green Architecture)등으로 불리며 다양한 경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생태건축은 다음과 같은 생태학적 기본 원리 속에 이를 기반으로 공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표1. 생태건축의 목표 및 특성

생태 개념	생태건축의 목적
자연의 생성원리	생태건축은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생명현상에서 발견되는 자연의 미적 질서체계를 통해 건축물이 주변환경과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 낼 수 있음.
에너지의 순환과 환경조절	기존 건축의 에너지 소비형 체제와 자원의 공급설비, 폐기물 처리 설비 등에 따른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음.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환경오염 없이 이용하고 태양·물·대양·공기의 주순환체계가 상호간에 유기적 연계를 갖고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전일적사고	건축을 자연 및 인간 생태계와 관련을 갖는 일종의 생태계로 간주하며,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양질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대두로 인해 현대건축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관계성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측면에

존성에 의해 세계를 관계와 통합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통합된 전체이며, 그 성질들은 작은 단위의 성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살아있는 조직체, 사회 및 생태계는 모두 시스템이다. (Fritjof Capra, Ibid, 1998, pp.42-43)  
10)오창권,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건축적 적용에 관한 연구, 현대 건축, 1996, p.55

事)와 logos(學文)에서 비롯되며, 넓은 의미로 환경에 관한 연구가 된다. 생태학은 1960년대 이전에는 생물학의 한 분과로만 인식되어 오다가 1960년대 후반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생태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고유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3)1866년 생물학자인 헤켈의 ‘유기체의 일반적 형태학’이라는 연구에서 소개되었으며 이를 유기체와 그의 외부적 환경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일반과학이라고 정의 내렸다.

4)라이너 그룬트만,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동녘, 1995, p.11

5)Fritjof Capra, The Web of Life, May 1998

6)복잡성은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에너지, 물질, 정보의 증가로 인해 평형에서부터 밀려나 질서와 카오스사이의 첨예한 경계에 도달함으로써 창발의 조직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7)뉴턴과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적 사고에 의해 성립된 기계론적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의 피리로 인해 물질적 풍요와 인간성 상실이라는 양면성을 표출하게 됨으로써 병리학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8)기계론적 패러다임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탈 기계론적 자연철학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이론과 같은 신과학에 의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9)시스템 이론이란 세계를 모든 현상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

서 이루어져 왔다. 생태건축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는 결국 자연과 인간 그리고 건축과의 조화이지만, 이들은 다음 <그림 1>에서처럼 각각 여러 건축적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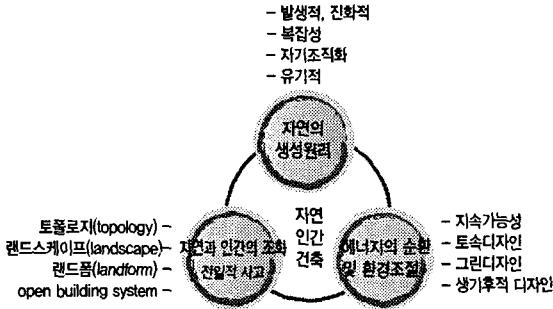


그림 1. 생태학적 원리의 건축적 적용 경향

2-3. 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계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생태건축에서 확장 적용되어 나타난 다양한 층위 중의 하나로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의한 전일적 사고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일적 사고의 대두는 서양적 사유체계로부터 동양적 사유체계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현대의 생태건축적 특성과 전통건축에 영향을 끼친 우리의 사유 속에 담긴 생태학적 특성을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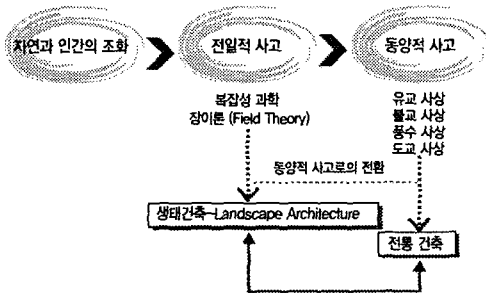


그림 2. 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관계

### 3. 전통사상의 자연관에 나타난 생태학적 특성

#### 3-1. 전통사상에 나타난 자연관

우리의 전통건축은 자연주의 철학을 기본으로 한국인의 자연관 내지 미의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연 인식 방법에 있어 대체로 동양인은 초자연적인 자연, 정령으로 차있는 신적 자연, 살아

있는 자연으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사회로서의 자연관을 갖고 있다. 우리의 자연관도 예외는 아니었고 인간과 자연의 합일로 인하여 양자 간의 영속적 생명이 순환을 이루며 자연과 인간이 동화되는 자연생명 사상이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는 성리학, 불교, 도교, 풍수사상은 자연과 인간을 상호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그러한 철학적 바탕에서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 (1) 성리학적 자연관

성리학의 태극=천, 리와 기의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태극은 우주만물을 통합한 하나의 일체인 대우주로서의 태극과 모든 만물에 각각 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소우주의 개념으로서의 태극이 있다. 우주<sup>12)</sup>는 공간적인 개념에 시간적인 개념이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만유를 포괄하는 우주는 하나의 태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태극은 불생불멸하는 것으로 모든 물질이 이 원리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sup>13)</sup>하는 것이다. ‘태극도설’은 사물의 생성에 대한 음양의 관계<sup>14)</sup>를 밝히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삼라만상의 생성변화에 관한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理와 氣는 一者と 多者の 관계, 혹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다. 理와 氣의 관계맺음이란 태극과 기의 관계맺음을 의미하며, 자연계와 인간계를 일관하는 총체적 원리이자 천인합일사상의 표출이다. 다시 말해 성리학의 자연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맺음, 부분과 전체의 관심을 가지는 생명 존중의 유기체적 사유구조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특성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11)윤홍택, 자연관이 건축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 건축학회, 23권 86회 pp.6-7

12)우주의 뜻을 정함에 있어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의 총체적인 시간을 주부라하고 상하사방의 공간적인 개념의 공간을 우주라하였다.

13)도용호, 유학사상의 사유체계에 의한 향교·서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 11권 8호, 1995, p.96 수정인용

14)태극론은 우주생성의 이치를 태극도라는 그림으로 설명한 것으로 양이 변하면 음과 합하여 水火木金土가 생기고, 五氣가 순조롭게 널리 퍼져 네 계절이 생겼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 오행이 바로 음양이고 음양이 바로 하나의 태극이라는 이론이다.

## (2) 불교의 자연관

불교의 연기론적 입장의 자연관에서 볼 때, 모든 삼라만상은 서로 얽혀 우주 안의 모든 것을 한 덩어리, 즉 한 생명체인 유기적 공동체로 파악한다. 또한 시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작도 종말도 없다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의 본질을 자유로 보고 모든 존재의 상대적 존재 이유를 인정하면서도 어느 대립 개념에도 집착하지 않고 초월적으로 보는 일원적 관점을 지닌다.

이렇게 불교의 자연관은 형태나 색채 등이 없는 듯 있음으로 해서 마음으로 관찰하여 인식하고 일단 인식되는 그 세련됨과 은근함에 끌리게 되는미를 지향, 소박성, 포용성, 탈기교성을 추구하는 미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교의 자연관과 인간관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만물일체론으로 자연의 감정이입이나 자연과 인간의 합일, 내부와 외부의 합일을 추구하는 표현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 (3) 도교의 자연관

도교적 자연관은 무위의 자연으로 함축될 수 있다. 이 말은 인위를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즉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다음 장자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인위적 지식을 좋아하면 위로는 해와 달의 빛을 가리고, 밑으로는 산과 강의 정기를 소멸시키며, 가운데에서는 세계 질의 변화를 어긋나게 하며, 꿈틀거리는 벌레로부터 가지를 위로 빨치는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자연의 본성을 잃고 만다.”

이처럼 도교의 사상에서 이상적인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 그리고 인간 그대로의 인간에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 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효용성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0개의 바퀴살이 한 바퀴통에 꽂혀 있으나 그 바퀴통의 빈 것 때문에 수레의 효용이 있는 것이며,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나 그 가운데를 비게 해야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으며, 운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나 그 방안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으로써 이름게 하는 것은, 없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하기 때문이다.” (노자, 도덕경 11장)

이를 건축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빈 공간으로부터 근원적인 ‘있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비워 있음으로써 여러 생활의 행위나 문화, 상징, 다양성, 불확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없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처럼 도교의 자연관은 자연생태계의 신비로운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지 않아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교와 迷作과 虛飾을 멀리하여야 하며, 근원적으로 비워있음을 통해 무위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 (4) 풍수지리와 실학사상의 자연관

무속신앙은 한국 전통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영향을 끼쳤으며 민간신앙의 모태가 되었다. 민간신앙은 오랫동안 관습이나 생활 속에 흡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라기보다는 생활양식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에는 자연숭배, 음양오행, 도참사상, 풍수지리 등이 있다. 이중 음양오행과 풍수지리<sup>15)</sup>에 대한 이해는 전통건축조영에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풍수지리<sup>16)</sup>는 주역과 음양오행사상을 포함하며 다양한 이론을 함축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산과 물, 그리고 방위를 그 주요 요소로 하고 있으며, 땅과 하늘을 구성하는 자연요소들을 자연철학, 지리, 천문, 건축 등의 여러 관점에서 종합하여 가장 좋은 물리적 환경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현대적 의미로 볼 때, 생태론적 및 환경론적 가치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의 자연관은 자연에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풍수는 장풍득수에서 유래된 말이며 산과 물, 그리고 방위를 중심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자연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좌향법 등의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다.

15) 풍수지리는 형성하는 고려조에 들어 이론적 체계가 구축되면서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고려말 조선시대 초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가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16) 풍수지리란 지리적 사고가 성숙·발전된 특이한 이론체계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 발생하여 그곳에서 이론의 확립을 본 뒤 우리나라에 도입된 풍수설은 다른 지역의 지리적 사고와는 매우 다른 본질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 선정이나 취락입지의 방법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영안의 장소를 찾는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독자적인 문화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pp.41-42)

표2. 전통 사상에 나타난 자연관의 생태 건축적 특성

대상	구성 요소	생태학적 특성
산	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줄기의 흐름</li> <li>하나의 자연환경을 유기체로 분석</li> <li>주변환경과의 친화성 고려</li> </ul>
	장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에서 풍향, 풍속의 영향</li> <li>에너지 절약과 관련</li> </ul>
물	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인 수자원의 유입, 배출</li> <li>수자원의 저수와 관리</li> <li>물의 체계에 관한 시각적 구조</li> </ul>
방위	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과 물의 흐름의 방향</li> <li>절대향 :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한 방향</li> </ul>

또한 풍수지리학에서 자연은 인체의 각 기관과 자연의 형태가 비유되며, 인체가 병들면 치료를 하듯, 자연도 병들거나 죽을 수 있으며 좋지 않은 곳은 풍수학적 치료를 함으로써 고쳐질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자연을 물질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성리학의 유기체적 자연관과 유사한 부분이기도 하다.

3.2 전통사상의 자연관에 나타난 생태학적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성리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의 자연관의 내용과 이에 따른 생태학적 특성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전통 사상에 나타난 자연관의 특성

자연을 생명체로 보거나 에너지의 순환과 절약, 자연과 인간이 대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합일을 추구하는 관계로 보는 것은 모든 자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태학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전통사상에 나타난 이러한 특성들은 앞서 <표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태 건축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도 부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 <그림4>와 같은 생태 건축적 특성들을 유추하고 이를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전통사상들이지만 이들의 자연

관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특성은 서로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 그 내용들이 중첩되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전통적인 자연 관속에 구현된 생태학적 사고는 독립된 사유체계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사회·문화 전반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있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보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4. 전통 사상의 자연관에 나타난 생태 건축적 특성

3-3. 전통적 자연관과 서양의 생태학적 관점의 차이  
프리츠프 카프라(17)가 신과학에 의해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전일적 세계관-을 동양적 세계관의 개념들과 어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전통사상의 생태학적 접근은 현대의 생태학이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 인식하는 근대의 자연은 단순히 대상일 뿐이며 기계론적으로 발전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객체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자연관에서 말하는 자연은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되 인간과 상호관계에 놓여 있는 대등한 존재로서의 자연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에서 바라보는 존재론적 자연관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

17)카프라(F.Capra)는 서양과학문명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의 해결은 동양사상으로서의 회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우리의 전통사상에 나타난 생태 철학적 사고는 대단히 진보적인 것이다. 논리의 정합성 면에서 보더라도 현대 서양의 사유보다도 크게 앞서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서양의 생태학적 패러다임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은 우리의 순환적 자연관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까지도 개발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전통 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관은 인간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에 부합될 것을 요구한다. 즉, 자연과 인간이 대등한 존재로서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4. 자연관을 통해 본 전통건축의 생태학적 특성

4-1. 유기체적 특성

자연을 생명체로 보고, 부분과 전체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유기체적 특성은 전통사상의 자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건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 유기체적 형태의 모방

자연형태의 모방은 자연계의 형상을 건축형태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통주거건축에서도 구조와 장식의 합치를 꾀하는 방법으로 유기체가 지닌 구조를 건축에 도입하였다.

① 동·식물의 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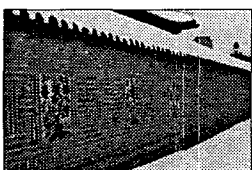


그림5. 식물형태모방

자연으로부터 유추해낸 많은 형상들 새, 무지개, 구름, 십장생 등이 상징하는 유동적 선과 형태를 시각적으로 유추하여 주거건축에 표현하였다. 또한 담장에서도 인간의 장수와 불사 등을 의미하거나 상징하는 여러 문자나 동식물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② 유동하는 형태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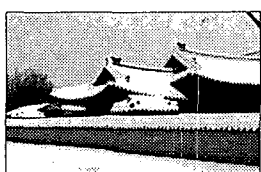


그림6. 유동적 지붕선

전통건축의 지붕은 우선 우산형으로서 샤머니즘의 천신이 행차할 때 쓰고 다니는 이른바 태양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와는 날개의 비늘을 의도적으

로 만든 것이며, 지붕 용마루는 치미와 취두로 장식되어 지붕 한 쪽 끝은 새의 머리가 되고, 다른 쪽 끝은 새의 꼬리가 되어 처마의 곡선은 날개가 퍼덕이는 역동감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생물과 무생물의 이중적인 건축 형태의 상징화이다.

(2) 유기체 성장 원리의 모방

자연계 현상의 성장개념을 건축의 성장 과정으로 인식하여 구성하는 표현원리이다. 유기체는 이미 완성된 것처럼 자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 보완적으로 스스로 발전하면서 전체 속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건축에서는 유기체 성장 원리 중 하나인 자기 유사성의 특성처럼 일정한 칸의 순환적 반복에 의한 성장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운조루에서는 口자 형태의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와 행랑채는 안채를 감싸면서 나무 가지처럼 원심력으로 외부로 뻗어나가는 유기적 형태를 띠며 확장하고 있다. 이복기 가옥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안채가 가지는 중심성을 해체하며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채는 단순한 一자를 벗어나 ㄱ자에 가까우며, 전체적으로는 원심력을 가지며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전통 건축은 칸을 기본 모듈로 하는 기하학적 자기 유사성에 의한 자기 조직화를 이루며, 건축 공간의 전체적인 구성은 중심성을 해체하며 원심력 방향으로 유기체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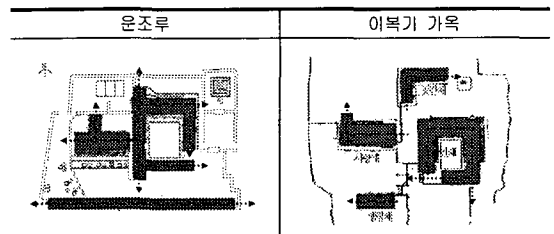


그림7. 자기 유사성에 의한 유기체적 성장

(3) 유기체적 통일성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부분과 전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연관의 특성은 전통건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방과 방은 결합하며, 각 공간은 부분으로서 존재하지만 마당을 중심으로 하나의 채를 형성하게 되고 전체와 관계를 맺게 된다. 또한 채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각 채들의 연결을 통

해 더 큰 전체와 조화로우며 추구하고 관계 맺으면서 유기적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8. 방과 방, 방과 마당, 마당과 채, 채와 채의 유기적 결합으로 부분과 전체의 통일성

#### 4-2. 자연과 인간의 조화

##### (1) 자연경관의 도입

전통주거건축에서는 집집마다 텃밭을 경작하여 그 영역 자체가 소생태계를 이루었으며 항상 산과 물을 가까이 하여 녹지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주거 공간 내에 식물과 조경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경관 수법들이 시도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차경<sup>18)</sup>이다. 한정된 공간역을 확장하는 기법인 차경은 자연으로부터 적극적인 교섭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관원리이다. 차경은 인공 건축공간에서 자연을 느끼고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한다. 차경은 단순히 외부경관의 차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바라보는 조망자가 감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빌려온 경관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경관을 체험함에 있어 자연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이입시켜 비 시각적인 경관영역까지 심리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능동적으로 빌려온 경관, 즉 진정한 의미의 차경이 되는 것이다.

독락당과 소쇄원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전통 건축은 이러한 의미에서 차경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락당 담장에 설치된 살창은 시선이 차단 될 수 있는 담장 일부분에 창을 뚫음으로써, 독락당 문의 프레임과 사이마당을 거쳐 자계에 흐르는 물을 주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담장 너머 외부의 자연경관을 끌어들이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수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18)借景(borrowing landscape)은 문자 그대로 경관을 빌어쓰는 것으로서 造園 공간 구성 기법의 언어이다. 이것은 가장 적게 인공을 가미하면서도 집밖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관을 인간이 몸소 찾아가거나 집안으로 직접 끌어오지 않고 집안에서 조망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의도된 풍경의 조작이다.



그림9. 외부경관의 차경(자연경관의 도입)

이처럼 전통건축공간의 아름다움이 생태적인 질서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점과 자연을 정복하기 보다는 순응하며 융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sup>19)</sup>, 차경은 동양의 내적 규율을 잘 표현한 경관 획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 내부와 외부의 경계상실 - 연속성

전통주거건축은 방의 문을 개폐함에 따라 공간의 확장과 폐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대청의 들어열개문을 열어젖히게 되면, 마당과 대청의 공간의 경계가 소실된다. 또한 대청 너머의 뒷마당까지도 공간의 투명성에 의해 공간은 더욱 확장 결합하게 된다.

한편, 물리적 구조체의 조작을 통한 내부와 외부의 연속성은 전통건축의 비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부엌이나 창고와 같이 작업과 수납이 주목적인 공간을 제외하고 인간의 주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간, 즉 단위 공간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문들은 폐쇄적인 문이 아닌 반투과적인 살창이나 창호지문 등이다. 창호를 통해 내부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담게 되고 우리 조상들의 정서는 자연과 언제나 호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0. 내-외부 공간의 경계소멸에 의한 연속성

이상은 건축의 투명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문의 개폐를 통한 내외부의 상호관입과 비물질성을 지닌 건축적 요소로 인해 공간의 내·외부 공간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배미경, 차경기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 석논, p.7

내·외부 경계 소멸의 방법에 있어 해체주의 이후 건축이 내·외부를 구분하여 경계를 소멸하려는 시도로써 투명성을 얻는게 주목적이었다면, 전통건축에서는 건축적 경계요소의 소멸로 인해 공간의 투명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앞과 뒤의 공간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체주의의 투명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건축적 특성은 4장에서 살펴볼-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내부공간의 외부화, 내부의 외부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연을 공간에 편입하고자 하는-랜드스케이프 건축적 경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전통주거건축에서 추구하는 투명성은 단순히 내부 공간의 외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경계 소멸을 통해 양방향 공간의 연속적 결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연과 인간, 내부와 외부의 개념처럼,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들의 합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생성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3) 지형에 순응

우리의 전통건축은 주어진 자연지형을 순응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1. 계정

독락당 內 계정은 자계에 펼쳐진 자연 경관을 즐기며,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장소성이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사산오대<sup>20)</sup> 중 관어

대 위에 건축된 계정은 자연적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전통건축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의 지형적 특성을 존중하며 가람배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찰건축은 우리

20) 사산(四山): 독락당 주위의 산들로 도덕산, 화개산, 자옥산, 무학산의 4개의 산을 일컫는다. 이 중 자옥산은 예부터의 이름이며, 나머지는 회재 이언적이 명명한 이름이다.

오대(五臺):

- \* 관어대(觀魚臺): 계정을 받치고 있는 시냇가의 반석
- \* 영귀대(詠歸臺): 관어대 동쪽 약 70m 떨어진 언덕에 있는 바위
- \* 탁영대(濯纓臺): 탁영대 북쪽 약 150m 떨어진 냇물에 나즈막한 폭포를 이루고 있는 바위
- \* 정심대(澄心臺): 관어대 북쪽 약 300m 떨어져 있고 지금은 콘크리트로 된 낮은 독에 의해 물이 고여있는 시냇가의 바위
- \* 세심대(洗心臺): 관어대 남쪽 약 600m 떨어진 시냇가의 바위. 여기에 '세심대'라고 새겨져 있다

의 생태적 건축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으로 부석사를 들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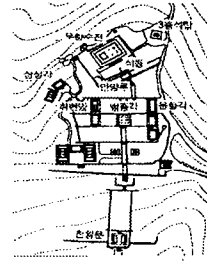


그림12. 부석사

4-3. 불확정적 특성

(1) 비위됨으로써 나타나는 불확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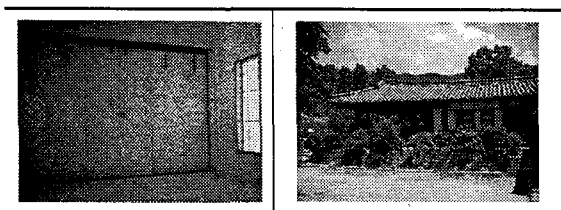
우리의 전통건축공간에서 방과 대청, 마당 등의 단위공간은 여러 행위들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방은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활동이 대부분 일어나는 장소로서 식사, 취침, 독서, 접객 등의 생활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안방, 사랑방, 행랑방 등으로 명명될 뿐이다. 이처럼 방에 대해서 누구의 소유라는 것보다는 위치나 크기로 구분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의 방도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방 자체나 소유자로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나아가 단위공간의 불확정성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의 마당은 자연과 많은 사람들의 통로, 작업, 관망, 행사 등의 다양한 행위가 잠재되어 있는 場으로서 특별한 장치적 도구가 첨가되지 않은 채 토양이 노출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마당이란 우리에게 비위됨, 즉 허<sup>21)</sup>로 존재한다. 虛라는 것은 공간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가능성이며, 실현되기 이전의 잠능이며, 잠재태이다. 그것은 존재의 모든 Potentiality인 것<sup>22)</sup>이다.

21) 虛에 대하여 노자는 존재가 기능으로 인하여 존재의 이유를 얻는다고 할 때 존재의 이러한 虛는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존재가 그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상실하면 곧 그 존재는 그 존재가 아닌 것이고 이러한 기능의 상실은 곧 '虛'의 상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가 존재의 기능에 의해 존재하기 위해서는 虛가 필요하고 '虛'의 상태는 '無爲'로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비워있음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림 13. 비움(Void)으로 존재하고 있는 방과 마당

이처럼 전통주거에서 나타나는 불확정성이란 단위공간이 상황에 따라 여러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전용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하나의 기능으로 공간을 정의할 수 없는 전통건축의 특질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다양한 행위를 담고 있음으로써 특정한 누구의 소유물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격이 주어지지 않는 전통주거 공간의 특성은 '다양성', '불확정성'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벽의 가변성에 의한 불확정성

벽은 공간을 분할하여 공간의 관계를 만들며, 공간의 사이사이 또는 공간과 형태 사이의 동선을 규정짓는 경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통건축은 다음 그림처럼 창과 문, 벽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 전통건축에서는 고정된 벽보다 문이 벽의 역할, 벽이 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각 방에서 마당으로 면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문들은 열고 닫음에 있어서 외부공간의 조망 및 환기의 역할과 통행의 목적으로서 문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한다. 또한 방과 방 사이에 놓여 있는 미닫이문의 경우 방과 방을 구획하는 벽 대신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미닫이문은 닫혀 있을 경우에는 방과 방의 영역을 구분하는 벽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열어놓았을 때에는 방과 방을 통합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sup>23)</sup>

들어열개 문은 문의 기능과 벽의 기능을 가지는 건축 구성요소로서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문으로서의 기능과 벽의 기능을 수행하고 여름철에는 들어 올려 젖혀 놓음으로써 외부공간으로 확장을 도와주면서 공간의 가변성을 유도하게 된다.



그림 14. 들어열개문에 의한 공간의 가변성 추구

5.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생태 건축적 특성

5-1. 랜드스케이프의 개념

랜드스케이프<sup>24)</sup> 개념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각기 다른 건축적 이상향의 변화와 함께한다. 17세기 회화의 한 장르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등장한 랜드스케이프는 18세기 별장이나 궁전의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픽취레스크'(정원)의 개념으로 건축 분야에 흡수되었으며 그 이후 '조경'으로 독자적인 장을 구축하면서 수목의 절삭기법이나 공간구성방식들 통해 발전하였다. 1900년대 후반 들어서 랜드스케이프라는 용어는 '건축적 경관(Architecture landscape)'<sup>25)</sup>이라는 개념으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며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건축적 경관'은 기존의 '자연적 경관'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경관이 된다.

현대 도시에 있어서 건축적인 개념으로서 랜드스케이프는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 푸른 환경, 이상향 등의 1차적인 의미를 뜻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널리 영향을 미치는 장, 생태적이며 경험적이고 시적인 것이 뒤얽혀있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것은 '관계성의 장'을 뜻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즉, 랜드스케이프는 건축의 오브제화를 거부하며, 건축을 단지 '환경을 점유'하는 구조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적 관심이 주인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도시의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24)눈으로 보았을 때 한 번의 조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가 있다. 생명이 없는 흙, 돌, 물 등과 생명력을 지닌 자연 식물 등은 자연적 요소에 속하고, 시멘트나 콘크리트·벽돌·다듬은 돌·철재 등 옥외 인공시설용 재료는 인공적 요소에 속한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5)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은 건축에 있어서 자연의 요소가 중요하게 등장한 것을 의미하며, 자연의 속성을 이용하여 '풍경'을 생성시키는 건축적 행위를 의미한다.

22)김용욱, 노자와 21세기(상), 통나무, 1999, p.192

23)이영미,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해석을 위한 존재론적 접근, 전남대 박사논문, 2004, p.232 수정인용

건축, 건축과 건축 사이의 공간, 점유와 점유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옮겨진 것이며, 부분과 전체에 대한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랜드스케이프 의미는 조경적 차원의 자연적 경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건축적 이해의 태도로써의 지각 방식을 뜻하는 것이다.

5-2.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대두된 배경

(1) 대지예술의 대두

근대 이후의 자연과 인간으로 이원화된 사고방식은 환경의 파괴를 야기하였으며 건축과 경관의 통합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환에 대한 단서를 대지미술(Land Art)이 제공해주고 있다. 대지예술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맺음에 있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대지예술은 그 형식과 개념에 있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고려하였으며, 장소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대상으로 제시된다. 대지 예술의 작품개념은 객체(예술 작품으로서의 풍경)와 주체(풍경을 인식하는 인간)를 통합시키는 것에 있다.<sup>26)</sup> 대지예술이 갖는 지형적 건축과의 관련성은 비단 그 소재인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에 더 큰 비중이 있다. 즉, 기존의 예술방법과 형태를 거부하며 자연에 대한 요구와 함께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지형적 건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2) 전원적 풍경의 구축

랜드스케이프를 통한 시적인 풍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건축적 관심이 생태적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랜드스케이프와 생태적인 환경은 등가의 것으로 취급된다.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은 환경에 대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환경에 대해 가장 시각적인 표현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둘째, 근대화가 소실한 녹색의 이상적이며 전원적인 이미지가 조화된 도시 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3) 이분법 사유의 붕괴에 따른 경계의 소실

90년대 이후 최근의 현대 건축에서는 건축과 경관의 관계가 모더니즘처럼 이원화되어 분리되거나 해체주의처럼 모순대립으로 인해 파편화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경계의 소멸’이다. 이는 즉, 문화·사회·예술 전반에 걸쳐 hybrid를 추구하는 흐름처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각기 다른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분법적 논리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건축과 조경으로 분리되던 두 분야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양자를 접목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4) 탈-산업화에 따른 불확정성 추구

탈-산업화로 인해 도시 생활에서 인식되는 공간 체계가 변화되면서 건축과 도시계획에 있어서 종래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었다. 탈-산업화는 건축에 있어 근대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던 산업 시설들이 도시로부터 이탈되면서,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의 욕구를 잠재하고 있는 비워진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거대하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던 땅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계획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는 그 성격이 모호하여 정의 내릴 수 없으며, 공허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점유되지 않은 빈 공간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5-3.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특성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대두된 배경에 따라 나타난 생태 건축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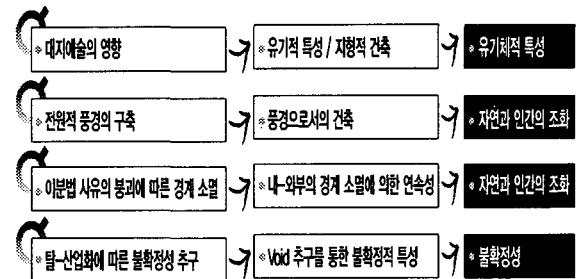


그림 15. 랜드스케이프의 생태 건축적 특성

(1) 유기체적 특성

① 유기적 건축

피터 아이젠만은 ‘City of Culture’에서 ‘Chevrons’와 지그재그라는 낯선 끌개에 의해 진동하는 ‘스

26) 관찰자와 관찰대상을 분리시키는 근대적 인식론에 대한 회의는 예술작품의 관람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대지예술가들은 작품을 독립성이 부과된 오브제가 아니라 물리적 구조물과 그것을 관찰하는 관람자까지 포함하는 상호 작용하는 체계로 보았다.

타카토 Landform<sup>27)</sup>를 사용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접한 중세도시의 지역적 상징으로서 생성의 메타포 뿐 아니라 주변 랜드스케이프를 들어 올리는 Landform으로써 형상과 지면을 동시에 생성한다.

찰스 쟁크스는 다음 그림에서처럼 땅의 입계에서 자기조직화에 의한 실험을 통해 일련의 'Landform'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여준다. 땅은 쟁기질로 인해 밀리는 대로 자기 유사적 형태로 자기 조직화한다. 파동은 호수, 랜드스케이프, 두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이는 모래와 자갈 고유 자기조직의 결과이며 뒤틀린 새 랜드스케이프의 언어이다.<sup>28)</sup> 이것은 유기체와 유사한 자기 변환의 상태 때문에 살아있는 물질, 초유기체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며 마치 자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림 16. 물리적 경계의 소멸에 의한 형태 생성

② 지형적 건축

대지예술의 영향으로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땅'의 속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공간 구축의 핵심으로 삼으며, 건축을 인공적인 슬라브를 설치하는 구축적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형의 재현'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과 땅이 가지는 기존의 관계를 탈피하며, 경사진 바닥면들이 건축물의 바닥판으로 연장되면서 대지의 연장이 된다. 이를 통해 자연과 건축은 소통하며 경계가 소멸되는 유기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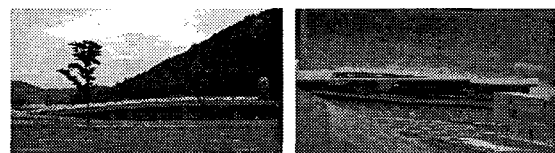


그림 17. 커뮤니티 센터의 지형적 특성

27)찰스 쟁크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경향으로 건물 타입으로서의 landform과 waveform의 창발을 언급한다. 그는 이를 끊임없이 이동하는 땅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메타포로 해석한다. 이러한 건축에서 절료는 거대한 스케일로 살아온다.

28)Charles Jencks,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p.215

이러한 특성은 헤이리 아트밸리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처럼 건물의 지붕은 도로의 선과 교차되면서 건축물로 인지되기 보다는 대지의 연속으로 보이게 된다. 이것은 내부의 경사로로 이어지면서 외부는 다시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2) 자연과 인간의 조화

① 경계의 소멸을 통한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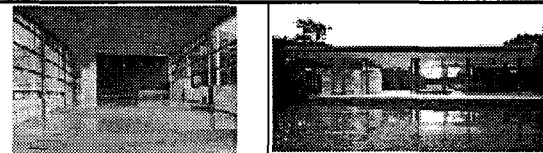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이분법적 논리를 지양하고 경계를 소멸시킴으로써 건축과 경관의 통합, 내-외부공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즉, 건축과 자연으로 이분되던 것의 경계를 허물고 이를 통해 자연과 일체화되려는 유기체적 특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스카이매트가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조절

그림 18. Florian Beigel 요코하마 여객터미널계획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의 계획안들은 랜드스케이프의 건축적 담론들이 활발하게 펼쳐진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Florian Beigel 안은 스카이 매트라는 경계 부분을 설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경계영역에 점유시키기 위해 스카이 매트라는 경사면의 구조를 이용해서 대지를 연장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영역을 자연 속으로 침투시켜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대립을 통해서 소멸시키며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고 있다.



Ota-Ku Resort Complex in Nagano(도요 이토) 여주 인재원의 그리팅 가든 (박헬렌주현)

그림 19. 내부의 외부의 경계 소실

또한 도요 이토의 「Ota-Ku Resort Complex in Nagano」와 박 헬렌주현의 「그리팅 가든」에서도 내부와 외부의 개념의 소실로서 자연과 건축의 일체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리로 된 건물의 입면

은 양측의 시선을 투과시키면서 양방향으로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 소멸을 통한 유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이 건물은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앞과 뒤에 있는 자연을 매개해 주는 경계요소로서의 또 다른 자연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표피에 의한 내부-외부의 연결로서 각 영역성이 섞이고 소통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관찰자는 자신이 속한 영역을 의심하게 되며 결국 그 영역을 재정의 하게 만든다. 즉,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사물의 정체성을 불확정하게 만들고 사용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전략으로서 외부에서의 점유자는 내부처럼 편안함(외부의 내부화)을 느끼고 내부에서는 열린 랜드스케이프에서 고립된 것처럼 노출(내부의 외부화)되어 불안한 상황을 인식하게 함으로서 관습적 인식을 탈주할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② 풍경으로서의 건축

현대도시에서 랜드스케이프라는 의미는 도시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더 이상 근대의 조경도 아니고 현대의 자연도 아니다. 랜드스케이프는 ‘풍경’이라는 용어로 대치되며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의미를 가장 함축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낸다. ‘풍경’은 자연을 대하는 인식 방법이고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자연의 속성에 주목하며, 오브제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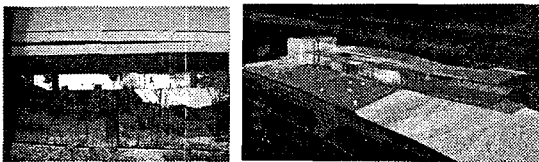


그림20. 풍경으로 존재하는 커뮤니티하우스

위의 그림은 헤일리 아트벨리에 건축된 커뮤니티 하우스이다. 이것은 헤리리가 추구하고 있는 불확정적공간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설계지침을 이상적으로 따르고 있는 모범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사 유리로 마감된 마을 쪽을 향해 있는 입면은 내부의 수직부재를 감추고 풍경 위에 떠 있는 구조체를 강조하고 있다. 건물 외벽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흐리면서 그 자체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하는 풍경으로서의 건축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비움을 통한 불확정적 특성

과거 서구 건축에서 자연은 전체를 완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대 건축에서는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과 건축을 대등한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건축물이 자연의 일부로 작용되면서 자연의 본질을 드러내는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표현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건축행위에서 자연을 담는 void 공간의 창출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빈 공간을 가장 중요한 ‘건축적 재료’로 보는 것은 그것의 자연적 가치가 아닌 매우 추상적이고 확산된 요소를 지닌 그리고 행태적인 것을 벗어난 ‘빈 공간’의 애매모호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sup>30)</sup>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빈 공간의 ‘애매모호함’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확정적 특성과 결부되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건축적 흐름이기도 하다.

오브제의 성격을 없애는 일, 그리하여 비 공간적인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건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랜드스케이프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주어진 지형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공간은 지형적 공간이라 부른다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공간은 땅이 갖고 있는 성질을 즉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비 영역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sup>31)</sup>

이렇게 사물 자체보다는 빈 공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사물사이에 존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주택의 거실이나 공공 광장이나 테라스와 같은 공공 공간을 주된 관심의 영역으로 여기며, 현대 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에 중요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으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비움의 개념을 응용하며 이는 건축공간의 불확정성의 특성을 이끌어 낸다.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불확정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사고로서 모든 관계를 확정적이지 않고 변화 가능하며,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불확정적이고 늘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일시성과 고정된 물리적인 장소를 점유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건축이라는

29)이영미, op.cit., 2004, pp.174-175

30)김광현, 건축과 자연, 이상건축, 9907

31)Manuel Gausa, Land Arch, Quaderns, 1997, p.220

것의 근본적인 특성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다. 이처럼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가능성은 건축과 도시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에 있다.<sup>32)</sup>



Desert Plaza 의 거대한 사이트에서는 풀, 물, 돌, 나무, 철 등의 재료의 요소화로 분절된다.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다양한 요소로 분절된 공간만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용도가 정해질 것이며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광장이다.

그림21. <비어있음>으로 존재하며 다양성이 잠재된 광장

### 6. 결 : 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건축의 생태학적 특성

본 연구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여 이에 대한 건축적 해결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건축의 흐름 중 하나인 랜드스케이프 건축과 우리의 전통건축에 나타난 생태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건축에 내재되어 있는 생태 건축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전통건축은 자연주의 철학을 기본으로 한 한국인의 자연관 내지 미의식의 결과로 표출되어진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표출된 건축적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첫째, 유기체적 특성, 둘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 셋째, 불확정적 특성 등 세 가지 생태적 특성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대두되게 된 원인에 따른 건축적 구현 특성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조직화의 유기적 특성,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적 특성과 내부와 외부의 경계 소멸을 통한 공간의 연속성 추구, 또한 자연경관의 도입, 비움에 의한 불확정성의 추구 등과 같은 생태적 특성들은 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모두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형에 순응하는 생태학적 특성 중, 전통건축이 자연의 지형을 살려 자연에 순응하며 건축된 유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는 지형을 살리면서 경사진 바닥판의 접힘을 통해 자연의 연장을 추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와 같은 tool과 기술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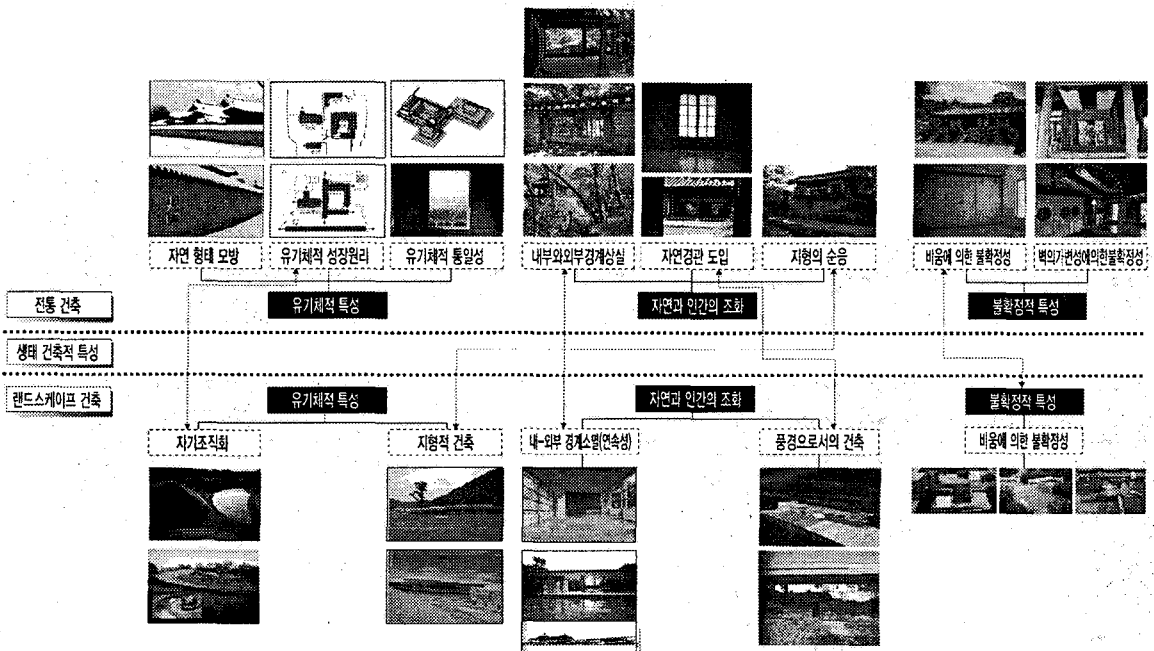


그림22. 전통건축과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생태학적 특성

32)Manuel Gausa, op.cit., p.217

달에 따라 건축적 구현방법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자연과 건축,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에 의하면 자연을 표현함에 있어서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과는 달리 자연을 투쟁하여 극복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자연에 굴복하여 문화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도 아닌 인간을 자연의 부분으로 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온 자연친화적 상생을 시도하는 자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적 자연관에 영향을 받아 온 전통건축의 최대 특징은 자연과의 대립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며 융합을 추구함으로써 인공적인 건축물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는 생태 건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통건축과 생태학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유기체적 통일성에 근거하여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관이란 점에서 생태학적 패러다임과 전통건축은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건축의 생태학적 공간 구성 방법에서 우리는 현대의 랜드스케이프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들이 오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였던 전통적 사고의 특징이며 오래전부터 생활에서 뿐 아니라 건축적 해결 방법 속에서도 유연하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특성이 현대 건축에서는 20세기 이후에 대두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랜드스케이프를 고려한 전통건축의 생태학적 특성들은 그 우수성과 현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건축의 생태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현대 랜드스케이프 건축과의 유사한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호하고 비체계적 언어로 설명되어져왔던 전통건축에 대한 관점에 향후 새로운 시각과 언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전통건축의 다양한 생태학적 가치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Fritjof Capra, *The Web of Life*, May 1998
2. Manuel Gausa, *Land Arch, Quaderns*, 1997
3. 라이너 그룬트만,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동녘, 1995
4. 김광현, *건축과 자연, 이상건축*, 9907
5. 김용옥, *노자와 21세기(상)*, 통나무, 1999
6. 이영미, *한국전통건축의 공간해석을 위한 존재론*, 전남대 박사 논문, 2004
7. 오창권,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건축적 적용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6
8. 배미경, *차경기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2
9. 윤홍택, *자연관이 건축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권 86회
10. 도용호, *유학사상의 사유체계에 의한 향교·서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11권 8호, 1995
11. 한경희, *생태학적 관점에 의한 전통 주거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호, 2001.12
12. 임연수, *땅의 속성을 반영하는 지형적 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13. 배우영,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나타난 경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14. 박경아, *지형을 이용한 건축의 공간화 방법*, 홍익대 석사논문, 2003

# Ecological Features appearing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Lee, Young-Mi

(Part Time Lecturer, School of Architecture, Chonnam University  
/ Process of Post-Doct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eon, Deuk-Youm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main aim of this research is centered on the relation between nature and humans, and is to study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appearing both in Landscape Architecture, one of the currents of ecological architecture as the architectural solution on the rela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in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see that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was influenced by our ancestor's view of nature, and that the foremost feature of our ancestor's view of nature on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is not conflicting with nature, but, instead it is complying with it through seeking harmony with nature. Also we could see that our ancestor's view of nature is similar to Landscape Architecture having come to the fore toward the tendency of modern ecological paradigm in that it is the representation seeking the organic view of nature pursuing the oneness among artificial structure, humans, and nature.

That is, we could figure out that various ecological features appearing in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had been represented for a long long time, in a natural fashion, in the manner of space makeup in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our ecological thinking system understanding nature and humans at the same context, and it has come down not only to our everyday living but to the manner of architectural solutions as well.

Through this research, we could reconsider the modern value of ecological architecture inherent in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

Keywords : Traditional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Ecological Architecture, Nature, Indeterminacy

---